

사범대 폐지 문리과대학으로 통합

영교과는 영어학부, 미교과는 미술학부로

대학의 존재 문제를 두고 학생들간의 의견 결렬로 논란을 빚었던 사범대 폐지안이 학생과 학과간의 합의를 통해 결국 98학년도부터 사범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가운데 매대를 지었다.

따라서 98학년도 입시부터는 영교과가 영문학과와 통합되어 '영어학부'로 미술교과가 (미교과)가 '미술학부'로 변경, 통칭되며 이 두 개 학부는 문리과대학에 소속된다.

이는 작년에 대폭적으로도 입학 학부제를 전체 학과에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측의 정책과 그동안 사범대학이 지녀 왔던 위상의 실추가 맞물려 내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학교 사범대의 경우 2개 학과만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의 교사취업현황을 살펴 봤을 때 임용율이 극도로 저조해 교육자 공급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사범대가 제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

이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2003년까지 교육자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 아래 실시하기로 한 사범대 평가가 내년이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학교 자체의 위상면에서도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우려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교과는 "기존의 학과가 폐지되어 전통을 잊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종합적이고 실용화

되어 전문적으로 영어를 접하게 된다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도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미교과 학생들은 그동안 교사로의 입문 기회가 적고 교육적 성질을 띠는 학과명 때문에 우수 신입생 유치가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 이번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남이 기자>



<제268회>
최 용 섭

최종등록율 95.47%

일반면접 등 포함돼 실제수치는 더 저조

지난 12일 이번 학기의 등록을 최종 마감한 결과 총 95.47%의 등록율을 보였다. 서울캠퍼스는 등록 대상자 9천 10명 중 8천 9백 19명이 등록, 98.99%의 등록율을 보였고 수원캠퍼스의 경우 대상자 8천 8백 23명 중 8천 1백 6명

이 등록, 서울보다 7%가량 낮은 91.87%의 등록율을 보였다. 이번엔 발표된 최종등록율은 재학생 중 등록생을 제외하고 고교 일반면접생과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까지 포함시킨 수라 실제 등록율은 이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고내단신

VOU 개국 40주년 기념 방송잔치

서울캠퍼스 대학의 소리 방송국(V.O.U.)은 오는 23일 '개국 40주년 기념 방송잔치'를 개최한다.

오후 6시부터 크라운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 최상진(국문과 교수) 신문방송국장의 격려사에 이어 2부에서는 영상구성으로 약학의 생활에 대해 소개하고 '쇼킹 코리아'라는 제목의 풍자드라마와 나르시즘을 다룬 영상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이다. 3부에서는 초대가수 이승훈씨의 기념공연이 열린다.

또한 이날 행사에 40번째로 입장하는 관객에게는 기념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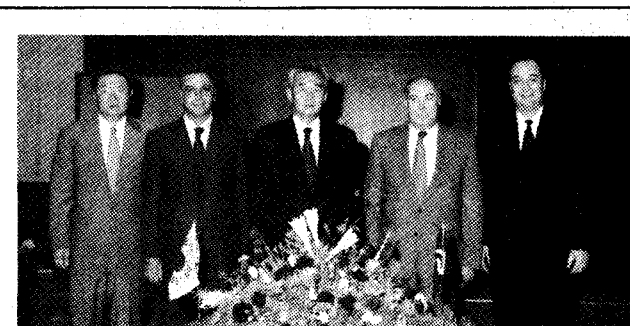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내일부터

합격자 대상 한국어 능력시험 치를 예정

98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는 합격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거주 재외국민(현지법인, 자연인 등)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4년 이상 재학한 자, 비연속적으로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 중·고등학교 과정 통산 5년 이상 재학한 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게 될 이번 전형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일 시
지원신청서 접수	9월23일~10월1일
자격요건 심사 및 서류보완	10월15일~10월17일
자격요건 심사결과 발표	10월22일
입학원서 교부	10월28일~10월31일
입학원서 접수	10월29일~10월31일
입학전형(필답, 면접, 실기)	11월8일 오전10시부터
합격자 발표	11월19일 오후 3시
합격증 교부	11월21일 오전10시
합격자 등록	12월5일~12월6일 정오까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금 환불	1998년 2월9일~2월26일



▲왼쪽으로부터 박규홍 수원캠퍼스 부총장, Abdelkerim Central 대학 총장, 조정원 총장, Dail Jazy 튀니지 교육부 장관, Elyes Kasri 튀니지 대사

튀니지 Central대학과 자매결연

우리학교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캠퍼스 대학의실에서 튀니지의 Central 대학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Elyes Kasri 튀니지 대사, Dail Jazy 튀니지 교육부 장관, Abdelkerim Central 대학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튀니지 전체 교육기관과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총학 2학기 개강사업 발표

서울 전학대회 오는 25일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방학중 '생활문화운동' 등 2학기 초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갔다.

"학생회 체계와 모임을 복구하고 경희학원에 대학정신을 불어넣자"는 기조를 가지고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은 생활문화운동, '한국학생운동은 끝났는가'라는 주제의 공청회, 1단계1과 "학생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 북한어린이들기 겨레사랑운동 등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한다.

생활문화운동은 목요일을청소하기와 공대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민족무예를 통한 푸른

아침 열기운동(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새치기 안하기운동을 시행하며 10월초 개최될 공청회에서는 각계 유명인사를 초청한 강연과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학생운동 방향모색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총학생회 박원권 사무국장(행정 91)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진정한 대학정신을 되살리고 학생회가 학우들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총학생회 간부를 비롯, 각 학

과의 학년대표까지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이번 회의에서는 97학년도 상반기 평가 및 결산, 하반기 예산심의 및 사업 등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회의 중 차기 학생인권

복지위원회(인복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인복위 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일 현재 등록자가 없는 상태라 후보 결정에 대한 사항은 오늘 있을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의를 거친 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한총련 혁신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될 이번 전학대회는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오후 6시 시작된다.

97가을 어학특강 개설

공개강의 통한 강의 선택 가능

서울캠퍼스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는 오는 29일부터 실시하게 될 '97 가을 어학특강'의 시간표를 발표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정경대 각 강의실에서 실시하게 될 이번 강좌는 공개강의를 개강일부터 3일간 실시해 기호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강좌별로 모의 토의를 시행해 자신의 성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각 강좌별로 모니터 요원을 배치해 강의 중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접수는 복지회관 5층 구내서점 '알찬지'에서 오는 10월 4일까지 받는다.

강좌명	시 간	가 격	강의실
안락사 토의	오전 7시 40분-오전 8시 40분	3만원	정201
다락원 토의	오전 7시 40분-오전 8시 50분	3만원	정304
시스템 토의 L/C	오전 7시 50분-오전 8시 50분	3만원	정305
ECC 토의 L/C	오전 7시 40분-오전 8시 50분	3만원	정309
신경향 토의	오전 7시 40분-오전 8시 50분	2만5천원	정308
AFKN 청취	오전 7시 40분-오전 8시 40분	5만원	정303

수원교수 26명 연구기자재 기증

수원캠퍼스 정석진(화공) 교수 외 26명이 잇따 3억5천만원 상당의 연구용 기자재를 학교에 기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관제과에서 추진한 교수 개인 소유 연구용 기자재 기증 을 의뢰해 3차에 걸쳐 나타난 결과로 그 품목도 노트북 컴퓨터부터 연구용 기자재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번엔 기증된 교수 개인 연구용 기자재는 교수 개인비, 연구비 등을 통해 구입되어 학교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품목들로 학교측에서 볼 때 상당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과는 이러한 이해적인 결과를 계기로 많은 교수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인·적성 검사 참여율 저조

진로설정 위해 저학년 참여 필요

학생생활연구소(소장:김종규 지리 교수)는 2학기 중 심사검사 실시 일정을 발표했다.

시간표는 아래 표와 같으며 약 30분이 소요되는 인성검사는 검사 해달일에 수시로 검사가 가능하나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적성검사의 경우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검사결과는 평가 당일 통보가 가능하다.

학생생활연구소의 오픈자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눈앞에 둔 4학년 때 검사를 신청하는데 인·적성 검사의 성적은 단시간 내에 올리기가 힘든 것이므로 저학년 때부터 검사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9시30분~정오			일반 상담	검사		검사	
정오~오후1시							
오후1시~오후4시	검사 및 평가	일반 상담	검사	검사 및 평가	검사		
오후4시~오후5시							

취재노트

◇...건강 체크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세계보건 기구 수치에 못 미치는 것을 너무도 걱정하는 젊은이들 관계자들이 이번 기회에 국민 건강을 체크해 봤다 하여 노트를 알아보니,

월미도 바다랜드에서는 유연성 체크를 위한 착지 연습, 과연 서울랜드에서는 팔 힘 강화를 위해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기 1백분을 시도했다는 것이 그 진상.

알고보니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닌 심장이 뼉뼉뼉 뛰

고, 간이 쿵알만해지는 심장과 간의 강화 훈련이었다고, 노트주 관계자 분들의 심오한 배려를 비로소 헤아렸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

◇...아부지 위해서라면...

이한몸 바쳐 당시 위해 걸 초보는 하는 열혈 효자님이 있다 길래 노트주 알아보니,

대선 레이스1번 주자님의 큰 아들레미가 2년 짜리 소록 아일랜드 봉사 패키지에 참여하셨다고.

알프스 샘물보다도 깨끗해야 할 자원 봉사가 대선 주자

님 아들레미의 군대 생략 전과의 옛집국이 될까 노트주 심히 우려되고있다.

◇...주차장과 출몰

주차장이 있어야만 학교 오 나요(이히~) 주차장이 있지 않아도 학교 잘 와요.

서-천 獅형들 변칙 자동차 주차 못해 인도에 불법 주차 애!씨!요!

당당히 한 불법 주차 약한 모습예요 주차하지마요! 딱딱 걸어요!요! 하지만 학교 당국 獅형들 주차할 때 한 마디씩 하죠 '너 주차에 불만 있나?'

(2절) 우정원에 빈 땅 두고 무엇하나요(이히~) 우정원에 땅 활용않고 딱지붙여요.

Rap. 자-대 주차장 너무 멀어요 주차하고 걸어가면 험뎌 치쳐요.

착하게 한 자대 주차 힘든 모습예요 주차장 늘려요! 딱딱 늘려요!요!요!

하지만 학교당국 직원들 주차할 때 한 마디씩 하죠 '너 주차에 불만 있나?'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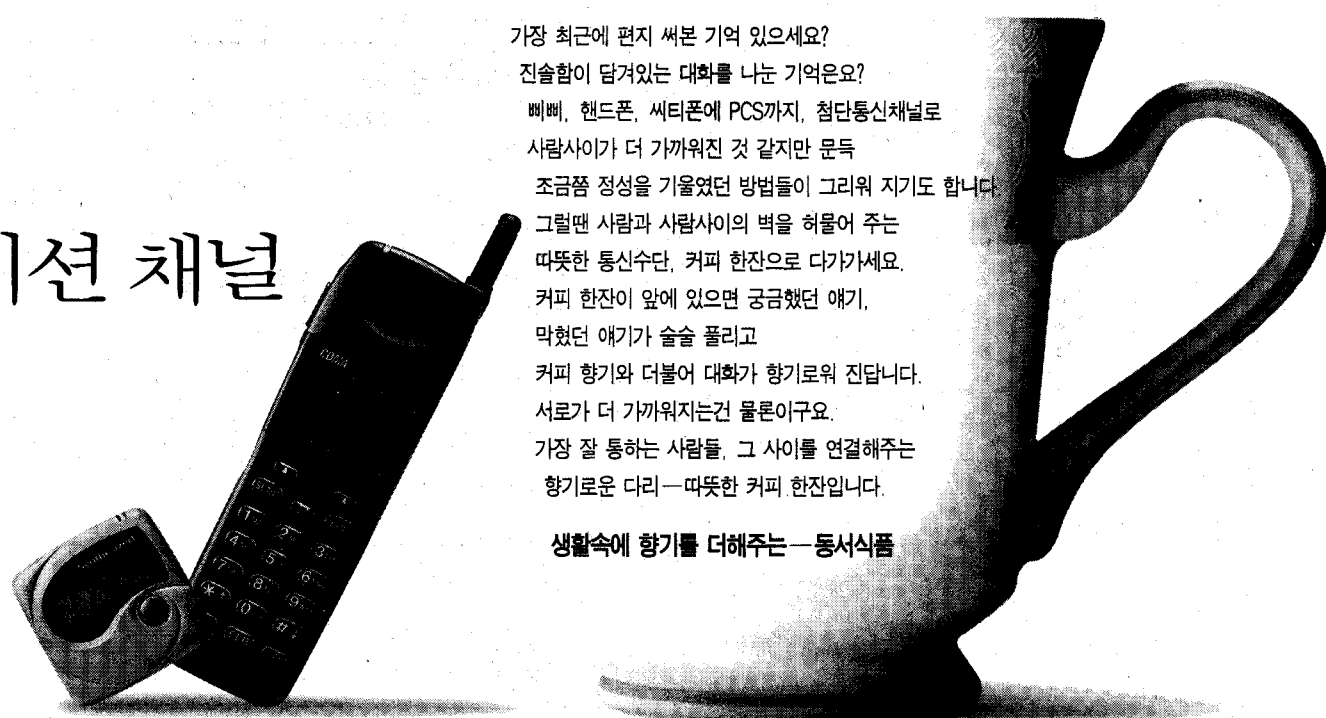
매년 이맘때쯤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던 화려한 버라이드쇼를 올리는 볼 수 없어 노트주 진상을 알아본즈.

월새없이 눈앞을 날아다니던 강풍, 담배꽂초, 휴지 등이 주인공이었던 쇼가 올해 벌어지지 못한 것은 1백만 원이나 되는 고속도로 공영장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서라고.

노트주 바라건대 극단의 재정난보다는 시민들 질서 의식의 바로 섭이 그 이유라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갑겠소.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따뜻한 느낌으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장 최근에 편지 써본 기억 있으세요?
진솔함이 담겨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억은요?
배배, 핸드폰, 세티폰에 PCS까지, 첨단통신채널로 사람이기가 더 가까워진 것 같지만 문득 조금쯤 정신을 기울였던 방법들이 그리워 지기도 합니다.
그렇면 사람과 사람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는 따뜻한 통신수단, 커피 한잔으로 다가주세요.
커피 한잔이 앞에 있으면 궁금했던 얘기, 막혔던 얘기가 술술 풀리고
커피 향기와 더불어 대화가 향기로워집니다.
서로가 더 가까워지길 물론이구요.
가장 잘 통하는 사람들,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향기로운 다리-따뜻한 커피 한잔입니다.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동서식품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Hitel:GO MAXIM